

“매혹적인 모순”: 엘리자베스 비숍의 영성 시학 (1)*

정은귀

차례

- I. 들어가며
- II. 돌아오지 않는 탕자, 몰락의 윤리
- III. 놓아주기와 체념의 미학
- IV. 글을 나가며

I. 들어가며

엘리자베스 비숍(Elizabeth Bishop, 1911-1979) 비평사에서 종교나 영성은 지금까지 그다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비숍 스스로 자신을 ‘불가지론자’(agnostic)라고 고백하기도 했거니와, 비숍의 시 또한 많은 경우 교리 중심의 기독교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어 비숍은 반종교적인 시인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비숍의 시는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전통과 사상의 영향이 두루, 그것도 매우 짙게 깔려있다. 그래서 비숍의 시는, 시인 자신의 시구를 빌려 말하자면 마치 “널리 퍼져있는 하느님의 지문”(God’s spreading fingerprint)을 묻는(질문하는) 일과 흡사하다.¹⁾ 비숍 시 세계에서 ‘하느님의 지문’은 기독교 전통에 뿌리내린 종교시의 범주와 색다른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임.

1) 1955년 발표된 시 「2000개가 넘는 삽화들과 완벽한 색인」 (“Over 2,000 Illustrations and a Complete Concordance”)의 한 구절이다. 여기에서 ‘concordance’는 삽화집 뒤에 붙은 ‘용어 색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일치’를 뜻하기도 한다. ‘일치’는 비숍의 영성시학을 “매혹적인 모순/불일치”로 설명할 때 다시 흥미롭게 변주된다. 앞으로 나오는 비숍 시의 인용은 *Elizabeth Bishop: The Complete Poems 1927-1979* 에서(약어로 CP) 하며 본문에는 쪽수만 표기한다.

방식으로 드러나는 점이 무척 흥미로운데, 이를 종교적/반종교적이라고 나눈다거나 단순히 양가적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비습 시 도처에 깔린 치열한 정신성의 싸움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한 읽기라는 판단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비습 특유의 절제된 언어 속에서 신, 상실, 고통과 화해, 죽음과 영생에 대한 시인의 고민과 성찰이 하느님을 ‘묻고 또 묻는’(asking and burying) 방식으로 시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느님이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나 종교적 지향성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시들을 우선적으로 골라 읽으면서 이 글은, 비습의 종교사가 하느님을 묻고(질문) 묻는(은폐) 두 대척적인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매혹적인 불일치/모순’의 장임을 살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습의 영성 시학이 세속성과 끈질기게 마주하고 버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러한 시의 윤리가 비습의 시를 개인적인 상실의 시학을 넘어 좀 더 공적인 언어활동으로 시쓰기의 역할을 드높이는 풍경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

영성적 관점에서 논하는 비습 시의 윤리학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기에 다소 실험적인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국내에서 진행된 비습 연구를 훑어보면 비습 연구의 협소한 틀이 크게 확장된 것 같지는 않다. 현대 미국시의 풍경에서 개성 있는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비습이 미국시사에서 부상한 것은 1980년대 특히 1990년대 이후였고 국내에도 이전에는 비습이 소개된 적이 거의 없다. 그간 엘리엇(T. S. Eliot)이나 프로스트(Robert Frost) 등 주류 모더니스트 시인들이나 플라쓰(Sylvia Plath), 리치(Adrienne Rich) 등 주요 페미니스트 시인들에 가려져 평단에서는 소외되었던 비습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그나마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정확하고 치밀한 묘사를 앞세운 비습 시학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이홍필 1999)가 있었고 2000년대 이후에 ‘장소의 시학’에서 비습을 조망하는 논문(양승호 2007), 혹은 소재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시의 범주에서 접근한 논문(황준호, 2007), 무어(Marianne Moore)와 로웰(Robert Lowell) 등 당대 시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비습 시의 내적 특성을 읽는 논문(김양순 2009) 등이 잇달았으며 최근에는 이론적 읽기가 결합된 예로 비밀상적 특성을 보이는 비습의 시를 들뢰즈의 잠재성 이론에 따라 읽는 논문

(박재열, 2011)도 있다. 비숍을 읽는 가장 평이하고 안전한 틀로 상실과 글쓰기의 방식으로 접근한 논문(윤명옥, 2012)도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비숍 시 읽기에서 재차 반복된 주제라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상기한 논문들은 주로 모더니즘 전통의 안과 밖에서 비숍의 시학이 그려 보이는 언어적 미학에 주목하거나 무어 등 동료 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숍 시 읽기의 의미를 찾는다. 비숍 시 세계 전반에 걸쳐 독특한 무너로 비스듬히 드러나는 신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지금껏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면 특이한데, 해외 영미시 비평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 와셔야 워커(Cheryl Walker) 등이 비숍 시에 풍부하게 드러나는 종교적 인유나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비숍의 시를 읽기 시작했다. 워커는 시간과 영속성, 사랑과 갈망, 고통의 의미 등에 관하여 비숍이 하느님에 대한 사유와 기독교 전통을 어떻게 자신의 시에서 흡수하였는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워커 자신 비숍 연구자이기에 앞서 크리스천으로서의 관심사를 내세우는 편이라 비숍 시의 내적 긴장을 다 살리지 못하고 기독교적 틀 안에서 시를 다소 평이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 정치한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비숍 시와 기독교 전통간의 관계가 다소 평면적으로 연결되는 점이 아쉬운 워커의 논의에 비해 코렐(Laurel Snow Corelle)은 좀 더 폭넓게 종교적 관점에서 비숍의 시를 읽고 있는데, 코렐 또한 크리스천 관점에서 비숍 시의 양가성을 주장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기독교적 종교시의 범주 안에서 비숍을 읽은 다른 연구자들로 머린(Jeredith Merrin), 로텔라(Guy Rotella), 뉴(Elisa New) 등이 있는데, 모두 크리스천 전통 안에 비숍을 들어앉히는 데 몰두하는 나머지 언어와 형식에 대한 고민을 인간의 존재조건과 함께 녹여낸 예술가 시인으로서의 비숍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²⁾

요약하자면 한국의 비평담론에서 비숍 연구가 지금껏 시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거나 시인의 상실의 경험을 정신분석적으로 논의하는 데 머물러 있었고 종교적 지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반면, 최근 영미 비평사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비숍 시의 종교적 지향성에 대한 연구가 가시화된 편

2) 머린은 비숍을 기독교 전통 그 중에서 시인 허버트(George Herbert)와 연결하고, 로텔라는 퓨리턴 전통과, 뉴는 캘비니즘 전통과 연결하는데, 모두 예술적 형식으로서 시에 드러난 긴장관계를 잘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지만 비습을 크리스천 영성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에 대한 읽기보다 연구자의 종교적 편향성을 시에 덧씌우는 읽기가 반복된 점이 아쉽다. 그간의 비습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기독교 전통과 비습 시의 연결고리를 살펴 보기를 시도하는 연구는 그 의미가 크지만, 시에 드러난 비유적 기법을 중심으로 기독교 전통에 비습의 시를 강제적으로 덧씌우거나(코렐의 경우), 비습 시에 만연하는 종교적 지향성을 기독교 전통과 신에게 편안하게 귀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워커의 경우) 비습이 끈질기게 고통한 인간의 존재조건과 신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습의 시가 다른 시인들보다 좀 늦게 본격 비평의 틀에 진입하게 된 것은 미국 모더니즘의 지배적인 시학이나 70년대까지 미국시를 주도했던 고백시의 흐름과도 일정부분 거리를 둔 비습 시의 독특함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겠다.³⁾ 이 곳 저 곳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즐겨했던 여성 레즈비언으로서 비습의 성적 정체성 또한 시인 특유의 상실과 우울의 시학과 겹쳐 꽤 문제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비습 시 곳곳에서 풍부하게 드러나는 다양한 종교적 인유에도 불구하고, 비습의 시는 종교시나 크리스천 영성 안으로 편안히 포섭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도처에 퍼져있는 하느님의 지문을 응시하고 끊임없이 의문하면서 다시 과묵은 작업을 반복한다. 이 글은 비습의 시에 깔린 종교적 지향성과 그 충돌의 지점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종교적 인유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초기시 한 편과 종교적 접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후기시 한 편을 읽을 것이다. 기독교적 색채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던지 두 편 모두 꼼꼼히 읽다보면 하느님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종교시로 모아지는 점이 흥미롭다. 이 두 편의 시를 펼쳐 놓고 이 글은 세속과 종교 사이에서 길항하는

3) 비습의 시학이 미국 현대시사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비평 담론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일찍이 비평가 칼스톤(David Kalstone)은 비습을 어느 작가 그룹에 넣어야 할지 그 위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비습을 “잡기 힘든”(elusive) 시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Kalstone 13). 칼스톤의 솔직한 고백은 쉽고도 어렵고, 일상적이면서도 비밀상적인, 또 종교적이면서도 반종교적인 비습 시의 독특한 시학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이처럼 “잡기 힘든” 비습 시의 특이성은 종교적 사유 안에서 비습이 갈등하고 끝내 씨름했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과 닿아 있다. 이 글 또한 현실의 언어들이 정갈하게 같고 닳여 시로 만들어지는 비습 시의 독특한 언어적 형식미가 세계 안의 인간 존재에 대한 영성적 고민 안에서 나온 것에 착안한다.

비숍 시의 독특한 리듬을 ‘매혹적인 모순’(불일치/불협화음)으로 이름하고 비숍 종교시의 특이한 지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필자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속의 자리와 밀접히 닿아있는 비숍의 영성적 시선이 어떤 방식으로 당대의 제도 종교와 억압적인 사회에 맞대응하는 시의 자리를 찾고 있는지, 쓰기 행위를 통하여 시인이 상실과 맞서는 자세가 어떤 점에서 종교적 성찰이 내재된 시의 윤리에 이르는지를 함께 질문해보려고 한다.

Ⅱ. 돌아오지 않는 탕자, 몰락의 윤리

알콜 중독자 비숍, 방랑자 비숍, 레즈비언 비숍. 시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비숍은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보면 지극히 문제적인 삶을 살았다. 때 이른 아버지의 죽음, 뒤이어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시인은 어릴 때부터 상실의 삶 속으로 내던져져 조부모와 친척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고적한 내적 갈등과 씨름하게 된다. 시인 자신, 제도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낸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통은 비숍의 시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비숍을 키워 준 양가 조부모님이 독실한 개신교도였고, 인디아에서 선교활동을 한 종조부가 여럿 있었다(Corelle 1). 종교적 편향성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졌던 터, 비숍은 14살에 허버트(George Herbert) 시집을 처음 사서 읽고 후에는 홉킨스(Gerard Manley Hopkins)를 자신의 “문학적 아버지”(literary father)로 삼게 된다(Costello 141, Corelle 2 재인용). 비숍이 이들 종교 시인들의 시적 기교나 방법론만 물려받은 것은 물론 아니었다. 스스로 제도 종교에는 비판적이었지만 비숍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재배치될 수 있는 시를 많이 남겼다. 신과 사랑, 용서, 상실 등 인간 존재의 근원적 문제와 고투한 기록이며 나아가 시인이 목도한 당대의 현실과 그 속에서 한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보고서로서 그의 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그간 종교시의 전통에서 유독 비숍이 배제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숍의 영성적 시학이 종교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세속화된 측면이 크게 도드

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비습 시에 드러나는 종교적 지향성과 세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코렐은 “매혹적인 모순”(fascinating incongruities)이라고 부르고 있다(1). 이 모순, 이 불협화음, 이 불일치는 자기 안의 거대한 풍경으로서의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평생 집을 그리워하고 영원의 문제를 질문하며 살았을 홈리스(homeless) 소녀 비습과, 교리에 납작 엎드리기엔 너무나 지적이고 예리한 지식인 시인 비습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겠다. 인간 존재가 직면하는 고통과 구원의 문제가 시의 크나큰 밑그림으로 등장하는 비습 시학에서 시인 특유의 상실의 미학은 신과 종교에 대한 윤리적 사유로 나아간다. 그 점에서 비습의 영성 시학을 개인의 사적 내면을 훑는 정신분석학적 틀을 넘어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그 의미를 읽는 것이 타당하겠다. 지금까지 비습 시 비평사가 주로 비습의 개인적인 삶에서 시인이 맞닥뜨렸던 상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여행과 기억의 언어로서 비습의 시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면, 이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과 대면하는 한 개인의 고투가 언어적 행위이자 실천으로서의 시의 윤리, 시의 미학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주목한다.

‘매혹적인 모순’의 형식으로 두드러지는 비습의 영성 시학은 신이 부재하는 종교시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비습의 시 구절을 응용하여 필자가 지어낸 ‘하느님의 지문을 질문하고 또 물어버리는’ 어긋나는 행위 또한 이 모순에 대한 설명이겠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종교시, 종교적 지향성과 세속성 사이의 긴장이 특히 부각되는 지점을 살피기 위해 우선 기독교 알레고리 문학의 예로 쉽게 거론되는 「탕자」(“The Prodigal”)을 읽기로 한다.⁴⁾ 워커는 이 시를 두고 “알콜 중독 문제에 대해서 비습이 쓴 시 중 가장 강렬한 시”라고 평가하는데(49), 비습에게 알콜 중독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 자신 강한 극복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실패를 하고 마는데, 주치의 바우만(Ann Baumann)

4) 기독교적 알레고리 문학의 예로 비습의 경우 「물고기」(“The Fish”) 「믿지 않는 자」(“The Unbeliever”) 「어업조합에서」(“At the Fishhouses”) 등이 있는데, 비습의 대표적 시로 자주 거론되었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인간 존재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여러 양상들을 따라서 특유의 회의주의적 시선을 견지하면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존재조건을 탐색하는 시로 「수탉들」(“Roosters”) 「2000개가 넘는 삽화들과 완벽한 색인」, 「잡초」(“The Weed”) 「아침의 기적」(“A Miracle for Breakfast”) 등이 있는데, 이들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유와 이미지들, 종교적 레토릭은 실상 시인이 현실 세계에 대해 품었던 비판적인 사유와 연결된다.

에게 보낸 편지에서 “편지를 부치지도 못할 텐데, 어쨌든 써서는 다짐하듯 매일 다시 읽고 있지요”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결심과 패배 사이의 술한 나날이 짐작된다. 알콜 중독을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의지를 내비치지만 그 편지 또한 술을 마시고 쓴 것. 말미에 “손이 떨려서 제 이름을 적지 못하겠어요”라는 말로 편지를 맺고 있으니 말이다(Millier 228).

1955년 발표된 두 번째 시집 『추운 봄』 (*A Cold Spring*)에 실린 시 「탕자」는 두 개의 소네트 형식으로 전개된다. 시인은 탕자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독자의 시선을 곧바로 탕자가 살고 있는 돼지우리로 안내한다. “(돼지의) 숨결과 뻑뻑한 머리”(with its breathing and thick hair)가 뒤엉킨 채 탕자가 뒹굴고 있는 돼지우리엔 “엄청난 갈색 냄새”(the brown enormous odor)가 진동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냄새를 갈색으로 시각화해서 시의 첫 행에 바로 등장시키는 것이 특이하면서도 강렬하다.⁵⁾ “나무 바닥은 썩었고 돼지우리는 / 미끈미끈한 돼지 똥으로 도배가 되었다” (the floor was rotten; the sty was plastered halfway up with glass-smooth dung, CP 71). 돼지우리 속에서 똥을 싸며 돌아다니는 돼지는 “독선적”이라고 묘사되는데 그러한 돼지의 눈이 탕자를 집요하게 쫓는다. “아주 즐거운 듯 뻥뻥 쳐다보는”(a cheerful stare) 시선이 탕자의 비참한 모습을 조롱하고 있다. 그 더러운 돼지우리 안에서 탕자는 술을 마시면서 잠든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가 떠오르면 “다시금 그는 이런 피난 생활을 / 1, 2년은 더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And then he thought he almost endure / his exile yet another or more, CP 71).

하지만 밤이 되어 첫 별이 경고하기 시작했다.

탕자를 고용한 농부는 밤이 되면 헛간

특 튀어나온 건초 더미 아래

소와 말을 가두려고 돌아왔다.

쇠스랑과 희미하게 갈라진 전등과 캐치 라이트와 함께

5) “갈색 냄새”는 돼지우리의 끔찍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공감각적 표현인데, 실제로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이 비숍이 특히 좋아했던 술이 버번 위스키였다고 한다.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주원료인 위스키로 떡갈나무 술통의 안쪽을 불로 그을려 술을 숙성시키기 때문에 색깔이 갈색이고 향 또한 진한 것이 특징이다.

노아의 방주에서만큼이나 안전하고 다정한 곳.
 돼지들은 작은 발을 뺨죽 내밀고 코를 골았다.
 태양처럼 사라지는 랜턴은
 진창 위에다 걸어가는 빛의 환을 만들고,
 미끈미끈한 나무판을 따라 양동이를 들고 가면서
 그는 번덕스럽게 비행하는 박쥐들의 날갯짓이,
 그도 어쩔 수 없이 쭈뼛해지는 시야가,
 자신을 건드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가
 마침내 집에 갈 결심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But evenings the first star came to warn.
 The farmer whom he worked for came at dark
 to shut the cows and horses in the barn
 beneath their overhanging clouds of hay,
 with pitchforks, faint forked lightnings, catching light,
 safe and companionable as in the Ark.
 The pigs stuck out their little feet and snored.
 The lantern--like the sun, going away--
 laid on the mud a pacing aureole.
 Carrying a bucket along a slimy board,
 he felt the bats' uncertain staggering flight,
 his shuddering insights, beyond his control,
 touching him. But it took him a long time
 finally to make up his mind to go home. (CP 71)

독자가 느끼는 끔찍한 실감에 비해서 탕자는 이미 이 바닥의 생활에 깊이 젖어 있는 듯, 족히 몇 년은 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녁별이 나타나 탕자에게 “경고”를 한다. 시인은 그 경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바로 농부와 소, 말, 박쥐들을 등장시켜 돼지우리 안의 풍경을 더욱 다채롭게 제시한다. 똥오줌으로 범벅이 된 미끌미끌한 나무판, 박쥐들의 불안한 날갯짓, 돼지우리 안에 도사린 불안과 위험, 비참함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연 또한 첫 연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비

참에 굴복하지 않는 탕자의 완강한 버팀으로 끝이 난다.

비숍의 알콜 중독 경험을 시에 직접 투영하여 읽어내는 워커와 달리 코렐은 이 시에 대하여 “자기 내부의 풍경을 재조직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해진 정신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적 훈련이 가능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고 본다(66).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너무 큰 불안과 부담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시인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은총의 예로 거론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온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필연성’이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아들을 품어 안는 이야기 중에서 위의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아주 짧은 부분이다. 이 우화 속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가산을 나누어주자마자 먼 고장으로 떠나 방탕을 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한다. 그 고장에 기근이 들자 곤궁에 허덕이게 된 작은 아들은 마을 사람을 찾아가고, 마을 사람은 그에게 돼지를 치게 한다. 시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탕아의 비참상은 정확히 다음 구절에 해당된다. 즉,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15장 16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필연성을 설파하는 성경의 예화와 달리, 비숍은 이 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 왕국은 어떤 모습이며 무엇에 비견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지극히 간략히 처리된 탕아의 비참을 시인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긴 분량으로 묘사한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미끈거리는 똥을 밟으며 “변덕스럽게 비행하는 박쥐들의 날갯짓”에 흠칫 놀라며 걷는 탕자의 모습은 생략된 성경 속 풍경을 생동감 있게 복원시킨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길게 활애한 돼지우리의 풍경 뒤 짧은 두 줄로 탕자의 귀환이 연기되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가 / 마침내 집에 갈 결심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의지적 결단이며, 그 의지적 결단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성경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고민 과정이 생략되었고 대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강조된다면, 비숍의 시 「탕자」는 아들의 비참한 몰락과 그

견딤에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뛰어난 상상력으로 묘사된 돼지우리 생활이 너무 실감나기에 그는 하루라도 빨리 그 곳에서 도망칠 것 같다. “하지만 그가”로 시작하는 마지막 두 줄의 짧은 결론, 즉 집에 갈 결심을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자못 예상 밖의 느낌을 준다. 비숍의 탕자는 그렇게 몰락을 완강히 견디며 은총을 지연한다. 그렇게 비숍 시 속의 탕자는 아직 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절망 속에 있다.

문학에서 알레고리는 교화를 위한 장르이다. 그런데 비숍의 「탕자」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시를 기독교 알레고리로 마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이 시는 오히려 극도의 곤궁함에서 계속되는 인간 경험의 한계를 실험하는 듯, 견디고 뺨대고 있다. 마지막에 이르러 성경의 알레고리와는 반대로 탕자가 귀환을 결심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를 덤덤하게 이를 뿐이다. 비숍의 탕자는 구원받는 탕자가 아니라 여전히 시험 위에 있는 탕자이며, 고통 받는 탕자이다. 여전히 절망의 진창에 빠져 미끈거리는 탕자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것처럼 비참하고 곤궁한 생활을 견뎌내는 아들의 인내심인데, 코렐은 흥미롭게도 똥구덩이 속에 처박힌 탕자의 비참상과 그 비참을 끈질기게 견디는 탕자를 ‘extravagance’ 개념으로 설명한다. ‘extravagance’는 ‘낭비/사치/화려함’을 모두 뜻하는 말이지만 원래의 의미를 헤아려보면, “the quality of exceeding the bounds of decorum, taste, or probability”(OED) 즉, “적절한 예법이나 취향, 개연성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자질”을 의미한다. 비숍의 탕자는 똥과 진창으로 둘러싸인 채, 꿀꿀거리는 돼지와 동거한다. 그 동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타락의 범주를 뛰어넘는다. 초과된 상상력의 힘으로 비숍은 탕자의 고난을 숭고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⁶⁾

성서 속 탕자는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돌아오지만 비숍의 시에서는 굶주림은 묘사되지 않는다. 독자의 상상과 달리 집 떠난 탕자가 머물고 있는 임시 집인 돼지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하고 다정”하다.⁷⁾ “노아의 방주”라는 비

6) 코렐에 따르면 비숍이 그린 더러운 돼지우리는 존 던(John Donne)의 시 「연도(連禱)」(“The Litanie”)를 떠올린다. 던의 시에서 성령(Holy Ghost)이 거하는 흙벽과 먼지구덩이 속에서 청원의 기도가 행해지지만, 비숍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완전한 자아망실의 해법을 그린다(70).

유는 일종의 종말론적 상상력이 탕자의 비참한 나날과 그 견딜에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종말론은 그러나 세상의 절멸도 새로운 천국의 열림도 예비하지 않는다. 하느님과 천국을 향해 있는 상상력이 아니라 결핍 많은 인간이 서로 똑같이 지저분한 몸을 부비는 이 더러운 진창 같은 지상의 나날을 응시하는 상상력이다. 트레이시(David Tracy)는 성서 속 탕자, 즉 잃어버린 아들의 우화를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being-in-the-world)의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로 본다(98). 트레이시의 논의를 이어받아 코렐은 비숍이 이 시에서 “인간성의 영역이 어떠한가”(what is the province of *humanity* like?)를 비숍이 질문하고 있다고 본다(71).

코렐의 해석을 조금 더 영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하면, 비숍은 여기서 아버지/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매일의 진창을 견디는 탕자를 그려냄으로써, 지옥같이 비참한 세속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하는 가운데 종교적 지향성의 끈을 간신히 지탱한다. 세속의 승리도, 종교의 승리도 아닌 비숍의 탕자에서 흑자는 ‘은총’이 결여되어 있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겠다. 돌아간다는 확신도, 확답도 없이, 다만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만 이야기함으로써 이 시는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당위성을 지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탕자 아들이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탕자, 다시 술독에 빠졌다가 내일 다시 비실비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조금은 더 견뎌 낼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세속과 종교가 팽팽히 맞선 어떤 힘을 읽는다.

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두 단어 “집에 간다”(go home)를 주목해보자. *OED*에 따르면 ‘home’은 “the place where one lives permanently” 즉 영원히 머무는 곳으로서의 ‘본향’(本郷)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집에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의 ‘기원’(origin)과 ‘뿌리’(root)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집은 특

7) 집을 떠나 유배된 자가 그 유배된 공간에서 집과 같은 편안과 안온함을 느끼는 장면은 「탕자」 외에 「영국의 크루소」 (“Crusoe in England”)에도 나온다. 「영국의 크루소」에서 비숍은 유배된 섬에서 산딸기로 술을 빚고, “집에서 만든, 집에서 만든” 것 같은 환희를 느끼는 크루소를 그린다(*CP* 13). 섬에서 고향성(home-ness)이 느껴졌던 크루소가 섬에서 구출된 뒤 모국 영국에 돌아가서는 “재미없는 잠동사니에 둘러싸여” 지루해지는데, 그러한 크루소의 아이러니는 인간에게 본향이 무엇인지, 일상과 비일상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이 문제는 다른 지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볼 참이다.

별히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refuge)이기도 하다. 그만큼 좀 더 친밀한 접촉, 좀 더 다정한 살핌과 헤아림, 좀 더 가까운 만남을 이 단어는 품고 있다. 시의 말미에 시인은 궁극의 도착지로서 집에 ‘가는 데’ 몇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집에 ‘갈 결심을 하는 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독자는 결국 탕자가 언제 집에 돌아왔는지 알지 못한다. 시의 말미에 ‘집 없음’(homelessness)의 상태는 가없이 연장되고 집에 대한 갈망 또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비습의 돌아오지 않는 탕자에게 ‘집’이라는 영원한 피난처는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미래형으로 남지만, 흥미로운 점은 탕자가 술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몸을 누인 돼지우리 또한 “다정한” 또 하나의 ‘집’이라는 점이다. 술병들이 뒹구는 좁은 방처럼, 그 누추한 돼지우리 속에서 탕자는 그렇게 “미끈미끈한 판을 따라” 걸으며 가파르고 불쾌한 세속의 나날을 연장한다. 비습의 탕자가 보여주는 몰락과 몰락 한 가운데를 건디는 ‘넘치는’ 인내는 자못 숭고한 느낌마저 준다. 그 숭고미를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⁸⁾ 매일의 우울과 비참을 견디며 걸어야 하는 우리 일상의 인내와 통하는. 이제 탕자는 성서 속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 돌아옴으로써 다시 안전하고 복되게 바뀐 탕자가 아니라 낯선 곳을 자기 자리, 자기 집으로 만들며 오래오래 건디는 자이다. 탕자는 그렇게 모든 평범한 이가 끝없는 일상에서 맞이하는 치욕과 인내를 대변한다. 한 사람에서 모든 이로 변모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니체가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말하는 “나는 사랑하노라.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을”에서처럼 그 몰락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탕자에게서 독자는 어찌된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다. 비습 영성 시학의 특이한 윤리적 지점은 그 견딤과, 그 견딤을 함께 느끼는 사랑과 연민의 자리에서 달성된다.

8) 여기에서 필자가 비습의 영성시학을 윤리와 연결하는 지점은 스피노자(Benedict de Spinoza)의 윤리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윤리는 규범의 윤리가 아니라 몰락과 고통 속 기쁨의 윤리학이며 ‘코나투스’(conatus)를 발현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자아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지속성을 얻고 인간의 지성이 신을 향하게 될 때 완성된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에티카』 3, 4부를 참조할 것.

Ⅲ. 놓아주기과 체념의 미학

앞서 「탕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몰락을 통과하는 이의 비장하고 넘치는 인내를 보여주었다면, 또 다른 시 「하나의 예술」(“One Art”)은 종교에 대한 직접적 인유 없이 비숍 영성시학의 특이한 지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 시를 영성시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숍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인 1976년 『지리 3』(*Geography III*)에 발표된 이 시는 비숍 시 가운데 일반 독자들에게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이다. 종교적인 질문들이 담긴 시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도 말년에 이르기까지 비숍은 제도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 교리에 여전히 비판적이었고,⁹⁾ 이 시에서는 종교적 알레고리나 죄와 타락의 문제, 신과 대면하며 맞서는 인간 존재의 질문들이 언급되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많은 시를 다루는 코렐의 저작에서도 이 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시는 어찌 보면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상실과 치유를 말하는 시로 읽힌다.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만남과 헤어짐을 그리고 있으니 말이다. 시인이 ‘하나의 예술’로 내세우는 것은 뜻밖에도 “잃어버리는 기술”이다. 시인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크고 비극적인 것으로 넓혀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상실의 경험을 열거한다.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질 의도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
그것들을 잃는 일은 재앙이 아닌 것을.

매일 무언가를 잃어버려보세요. 잃어버린 현관 열쇠,

9) 파운틴(Gary Fountain)과 브라주(Peter Brazeau)의 전기에 따르면 비숍은 말년에 이르러서도 교회에 가 예배를 보는 행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드러냈다고 한다. 적나라한 비판이었다기보다는 믿음의 틀을 질문하고 믿는다는 행위를 회의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Fountain and Brazeau 348-49). 시인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전기는 골든손(Lorrie Goldensohn), 칼스톤(David Karlstone)의 저작을 참고할 것.

쓸데없이 소모한 시간의 낭패감을 받아들여보세요.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엔 더 멀리, 더 빨리 잃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장소들, 이름들, 그대가 여행하기로 한 곳들,
그 어떤 것도 재앙은 아닐 거예요.

난 엄마 시계를 잃어버렸지요. 보세요. 내 마지막
아니 그 전의 아끼던 집 세 채가 떠나갔잖아요.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어렵지 않아요.

근사한 두 도시도 난 잃어버렸어요. 또 더 넓은,
내 소유였던 영토도, 두 개의 강과 하나의 대륙도요.
난 이것들을 아쉬워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당신(장난기 어린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몸짓)
을 잃게 된다 해도 내 말이 거짓말은 아닐걸요. 분명,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
비록 그게 재앙처럼 (그렇다고 쓰세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The art of losing isn't hard to master;
so many things seem filled with the intent
to be lost that their loss is no disaster.

Lose something every day. Accept the fluster
of lost door keys, the hour badly spent.
The art of losing isn't hard to master.

Then practice losing farther, losing faster:
places, and names, and where it was you meant
to travel. None of these will bring disaster.

I lost my mother's watch. And look! my last, or

next-to-last, of three loved houses went.

The art of losing isn't hard to master.

I lost two cities, lovely ones. And, vaster,

some realms I owned, two rivers, a continent.

I miss them, but it wasn't a disaster.

—Even losing you (the joking voice, a gesture

I love) I shan't have lied. It's evident

the art of losing's not too hard to master

though it may look like (*Write it!*) like disaster. (*CP* 178)

시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단면들이 작은 것에서 큰 범주로 나아가면서 제시되므로 세속성이 두드러지는 시는 얼핏 영성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일상적으로 겪는 세속의 삶, 그 번잡함에서 출발하는 시는 시인의 특별했던 삶에서 경험한 상실들을 나열한다. 시인의 삶에서 크나큰 부재로 새겨진 어머니라는 존재가 ‘시계’로 부각되고, 시인이 여행했던 수많은 도시들, 그가 사들였던 집들, 그가 사랑한 사람 등 비숍 삶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면면들이 차례로 환기된다. 사는 일은 모든 만남이 결국 상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견디는 일. 반복 화법으로 되풀이되는 상실과 그 상실을 겹겹이 버티는 과정을 독자는 고스란히 지켜본다.

이 버팀, 이 견디를 영성과 연결할 수 있을까? 위커에 따르면 비숍은 성녀 테레사(St. Teresa)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 (*Way of Perfection*)이나 성 이그나티우스(St. Ignatius)의 저작을 많이 읽었기에 가톨릭 전통에서 말하는 ‘놓아주기’(letting go)에 익숙했다 한다(36).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 관한 앞의 시가 죄를 짓고 사는 인간에게 용서를 베푸는 신이 부재하는 종교시라면, 이 시는 고통 받는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는 신이 부재하는 종교시이다. 다시 시를 찬찬히 읽어보자. 시인은 상실의 범위를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간다. 번잡한 일상사에서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 현관열쇠에서부터 아끼던 물건들, 허둥대는 바쁜 나날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시계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집, 영토, 대륙마저 잃어버린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불가능

한 지점으로까지 범위가 커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당신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쯤 되면 이 시는 어렵지 않다고 반복하지만 실은 도저히 놓기 힘든 생의 모든 관계들을 아이러니로 반추한다. 하나씩 이름불리는 대상들의 소중함은 더 크게 각인되고, 독자는 상실의 기술이 아닌 ‘체념’의 기술을 함께 훈련한다. 배우기 어렵지 않다고 거듭 말하는 그 상실의 기술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상실의 슬픔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다.¹⁰⁾

이 시에서 시인이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는 상실의 기술, 상실의 슬픔을 체념의 미학과 연결하여 생각해보자. 시인은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에는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성 이그나티우스의 『영적 훈련』(*Spiritual Exercises*)에서 그려지는 자기 절제, 체념, 놓아주기와 같은 영성적 훈련을 평생토록 해오지 않았을까.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 그 충격으로 평생을 정신병원에 갇혀 지낸 어머니, 형제가 없이 홀로 남겨진 비숍, 양가 조부모님이 차례로 정성껏 보살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에게 가족이 함께 하는 ‘집’은 없었다. 그래서 비숍은 평생 동안 집을 찾아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다고 한다. 시인은 해변 지역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바다와 해변」(“The Sea and the Shore”)이라는 짧은 단편에서 비숍은 하나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결국 비숍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토록 열망하는 것을 찾아나서는” 길과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Collected Prose*, 176). “그토록 열망하는 것을 찾아 나서”면서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을 어떻게든 버티어 자기 안으로 침잠하고자 하는 과정은, 이그나티우스가 ‘영적 훈련’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그나티우스는 하느님을 더 많이 영접할 수 있는 정신적 지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비숍에게 상실과 그 상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 많은 갈망을 다스리는 법을 찾는 것과 같다.

크고 작은 소중한 물건이나 대상을 잃는 것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역설

10) 비숍은 이 시를 17번 고쳐 썼다고 한다. 시인은 거듭, 말하기와 쓰기 사이에서 그리고 재양임을 인정하는 일과 부정하는 일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린다. 시제도 현재형과 미래형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비숍은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이며 그 상실의 아픔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 성격의 것임을 역설하고자 했다(Page, 23-5).

속에서, 그래서 끝없이 다져야 하는 훈련이고 기술임을 상기하면서 시인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바로 ‘글쓰기’이다. 어쩌면 글쓰기만이, 현실에서 그토록 반복적으로 훈련하지만 늘 실패하게 되는 ‘상실의 기술’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시의 제목이 된 ‘하나의 예술’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훈련이면서 동시에 ‘글쓰기’를 통하여 그 상실을 되살려내는 역설적인 과정이 된다. 그래서 시인은 시 말미에 힘주어 강조하듯, 이탤릭체로 느낌표까지 붙여서 ‘**그렇다고 쓰세요!**’ (*Write it!*)라고 한다.

비교적 만년에 발표된 이 시에 이르러 어쩌면 시인에게 ‘하느님의 지문’은 지난한 삶의 경험 속에서 이미 닳아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앞서 「탕자」에서 시인이 성경의 알레고리를 빌려와 하느님의 지문을 어떻게 감촉하는지를 질문하였다면, 이 시는 하느님의 지문을 보이지 않게 파묻으면서 그 무덤에 순종과 체념의 미학을 담는다. 그 체념의 미학이 기독교 전통과 절묘하게 만나면서 하느님이 부재하는 형식 속의 종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그 점에서 이 시는 나와 세계를 둘러싼 관계들, 존재의 방식과 절멸에 관한 질문이다. 「탕자」에서 아버지(하느님)의 용서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몰락 속에서 버티는 탕자의 인내가 더 큰 울림을 주듯, 「하나의 예술」에서 반복되는 상실의 삶을 지나며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로 달래고 버티는 목소리가 상실의 아픔을 더욱 배가시킨다.

사실 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기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상실의 기술을 잘 터득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묻는다. 상실을 견디는 법과 그 재앙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시인은 괄호 속 짧은 외침으로 암시할 뿐이다. 안간힘으로, 재앙이 아니라고 ‘쓰면서’ 견디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듯.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여러 겹의 상실 앞에서 ‘쓰는 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애도의 방식인가? 쓰면서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의 웃음을 떠올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 몸짓을 되살린다. 그러면서 비로소 간신히, 제대로, 잘 떠나보낸다. 이 지점에 이르러 ‘체념,’ 혹은 ‘놓아주기’라고 표현되는 그 훈련이, 기술이, 실은 영성적 차원의 ‘자기 절제’이며 ‘자기 버림’이요 ‘놓아주기’임을 알겠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예술은 그러한 자기 버림 위에서 안간힘으로 되새기는 윤리적 실천의 한 방식이다. 상실을 기록하는 일은 상실의 대상을 기

역하는 일, 기억함으로써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과 같다. 잃어버린 것들을 쓰는 일이야말로 남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책무이고 버팀의 방식임을 시인은 설파한다.¹¹⁾

IV. 글을 나가며

이 글은 비숍의 시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 필자가 꼭 하고 싶었던 여러 단계의 작업 중 그 첫 단추를 겨우 꿰맨 것이다. 비숍 시 도처에 묻어 있는 ‘하느님의 지문’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 퍼져 있는 지문들의 의미를 물어보고 (asking), 또 파묻어 보고(burying), 다시 살려내는 반복적인 버팀 읽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첫 작업으로 하느님이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시 두 편을 같은 논의의 장에 펼쳐 보면서 비숍의 종교시가 드러내는 “매혹적인 모순”을 그려보았다. 이 글에서 읽은 시들은 가시적인 차원에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성에서 제기하는 타락과 구원의 문제들이 강하게 부각된다. 비숍 초기 시편에 등장하는 「탕자」는 성서에서 짧은 1줄로 처리된 탕자의 비참상과 몰락을 시인의 발랄한 상상력으로 실감나게 전하면서 몰락 한 가운데를 전전하는 탕자를 그린다. 그 과정에서 독자는 하느님의 은총이 거부되는 버림받은 탕자라기보다는 고집스런 견딜 속에서 몰락 가운데를 살아내는 넘치는 인내를 본다. 후기 시편에 해당되는 「하나의 예술」은 신이 부재하는 시절, 점점 더 큰 폭으로 확장되는 욕망의 시선을 쫓으면서 욕망과 상실의 순환을 그린다.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보내야

11) 여기에서 필자는 비평가 신형철에게서 시인이나 소설가 등 세계의 몰락과 패배, 상실을 쓰는 자의 ‘윤리’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왔다. “우리에게 자유, 선택, 책임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라는 층위다. 그리고 그것들 없이 주체는 성립될 수 없다. 윤리의 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체일 수 있다. 어쩌면 주체의 수만큼이나 많은 윤리학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다. 작가는 ‘에티카(ethica)를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로 결정된다”라고 그가 말할 때(142), 필자는 미국 시인 비숍과 거리가 먼 한국의 평론가에게서 시인 비숍이 그토록 절실하게 매달린 ‘시 쓰기’의 문제를 존재하는 자의 윤리적 책무로 연결시킬 지점을 찾은 셈이다. 그러한 윤리적 책무의 근거에 끊임없이 ‘놓아주고’(let it go) 비워내는 시인의 영성적 체험이 자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일 터이다. 하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상실 앞에서 “잃어버리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로 비숍은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반복되는 상실 앞에서 반복되는 ‘놓아주기’의 훈련, 그것이 마침내 쓰기로 완성될 때, 그 “기술”은 “하나의 예술”이 될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적시했듯, 비숍의 영성시학은 세속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이 몰락의 비참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신은 뒤에 멀찍이서 있는 듯 보인다. 그러한 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견뎌내는 것이다. 버티는 견뎌내는 한 방식이고, 체념도 견뎌내는 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그 견뎌내야말로 실은 기독교 영성의 참회와 속죄의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시에서 종교적 영성을 찾아 읽는 일이 교리에 묶인 엄격한 도그마를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발달한 상상력으로 그리는 현실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풍부하게 직조하는 시선 앞에서 그 통찰의 문 또한 더 넓게 열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종교적 영성은 정확한 관찰과 끈질긴 사유를 통해서 세속의 지점들과 만난다. 린치(William F. Lynch)는 “아름다움이나 통찰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 그 명백함을 **통과해서** 나아가야 한다.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잠재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23)이라고 말할 때, 이는 세속과 종교, 영과 육체가 만나지는 방식이 어느 한 쪽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전한다.¹²⁾

교리 기독교의 영성 안에 편안히 포섭되지 않는 비숍의 시는 그러므로 세속의 삶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타락과 상실, 절망을 견안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식하고 이 타락과 한계와 싸우는 고투로서 의미가 크다. 성경이나 다른 종교적 텍스트의 사유를 시에 차용하면서 비숍은 인간 조건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고집스레 매달린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종교적 지향성 이전에 세속성이 도드라진다. 상실과 타락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인간조건과 싸워나간 한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no shortcuts to beauty or to insight, We must go through the finite, the limited, the definite, omitting none of it lest we omit some of the potencies of being-in-flesh”(Lynch 23). 여기에서 세 개의 단어가 나란히 쓰였는데 모두 인간의 유한함, 육체의 한계 등을 일컫는 말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 한계를 안고, 통과하여 나갈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길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첫 단추가 아닌가.

인간의 고투는 기독교적 전통과 신앙의 틀을 근본에서 뒤집어 거듭 질문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비숍의 영성 시학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 조건에 적극적으로 대면했던 한 인간의 실천적 사유이면서 몰락에 맞서는 시적, 윤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잃어질 것들'과의 만남이다. 알콜 중독이나 떠남, 타락 또한 상실의 한 양상이다. 상실과 이별이라는, 모든 존재가 필연적으로 겪을 운명적 난제 앞에서 시인은 때로 그저 견디고, 때로 버리고 체념한다. 이 모든 고투, 그 싸움은 비단 비숍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시대 모든 존재들의 싸움이기도 하겠다. 그 싸움이 비록 완전한 구원의 길은 아니더라도 몰락과 패배의 기록 또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적 구원이자 윤리적인 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숍의 시를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가능한 읽기를 모색한 첫 번째 시도로 이 글은, 그러므로 비참과 몰락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인간의 비루한 버팀을 기록하는 일, 상실과 패배를 잊지 않고 시로 쓰는 윤리적 결단이 비숍 영성 시학의 특징임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지극히 사적인 차원에서 상실과 우울의 시인으로 비숍을 가두어 묶었던 기존 비평 흐름에 맞서서 필자는 비숍의 시가 보다 보편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 조건의 한계와 씨름하는 고투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했다. 기독교적 영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체득했으되 제도 종교의 틀은 완강히 거부했던 시인, 그 모순이 전통적인 종교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윤리적 함의가 깃든 영성적 시, 표면적으로는 부재하는 하느님의 지문이 비스듬히 드러나는 시를 낳았다. 다음 작업에서 필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기독교 전통과 만나는 비숍의 시들을 찾아 읽고자 한다.¹³⁾ '쓰기'에서 배태된 비숍 영성 시학의 공적 의미가 미국 현대사를 가르는 문화의 장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다른 지면을 약속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13) 각주 4번을 참고할 것. 가령 「2000개가 넘는 삽화들과 하나의 완벽한 색인」, 「믿지 않는 자」, 「어업조합에서」, 그리고 「수탉들」 등을 통해 시에 도드라진 종교적 색채가 비숍 당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시의 표면에 묻어 있는 하느님의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당대 역사의 공적인 영역과의 마주치는 지 등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이다.

인 용 문 헌

- 김양순. 「무어, 로윌과의 관계 속에서 엘리자베스 비숍 읽기」. 『영어영문학』 55 (2009): 25-59.
- 박재열. 「엘리자베스 비숍과 들뢰즈의 ‘잠재성」. 『현대영미시연구』 17.2 (2011 가을): 93-122.
- 양승호. 「엘리자벳 비숍의 장소의 시학」. 『현대영미시연구』 13.2 (2007 가을): 67-92.
- 윤명옥. 「상실과 글쓰기: 엘리자베스 비숍의 「한 가지 기술」 과 「마을에서」. 『인문과학』 95 (2012): 107-32.
- 신형철. 『몰락의 에티카』. 서울: 문학동네, 2008.
- 이홍필. 「엄밀성의 미학: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 『현대영미시연구』 4 (1999): 195-228.
- 황준호. 「미디어, 전쟁, 전쟁시: 미즈이 야마다, 엘리자베스 비숍, 뮤리엘 러카 이저의 경우」. 『현대영미시연구』 13.1 (2007 봄): 173-90.
- B. 스피노자. 『에티카』. 강영계 역. 서울: 서광사, 2007.
- Bishop, Elizabeth. *The Collected Pros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9.
- _____. *The Completed Poems: 1927-1979*.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9.
- _____. *Poems, Prose, and Letters*. Ed. Robert Giroux and Lloyd Schwartz. New York: Library of America, 2008.
- Brogan, Jacqueline Vaught. “Naming the Thief in ‘Babylon’: Elizabeth Bishop and ‘the Moral of the Story.’” *Contemporary Literature* 62 (2001): 514-34.
- Corelle, Laurel Snow. *A Poet’s High Argument: Elizabeth Bishop and Christianity*.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2008.
- Costello, Bonnie. “Marianne Moore and Elizabeth Bishop: Friendship and Influenc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0 (1984): 130-49.

- Fountain, Gary and Peter Brazeau. *Elizabeth Bishop: An Oral Biography*.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44.
- Goldensohn, Lorrie. *Elizabeth Bishop: The Biography of a Poetry*. New York: Columbia UP, 1991.
- Kalstone, David. *Becoming of a Poet*. New York: Farar, Straus and Giroux, 1989.
- Lynch, William F. *Christ and Apollo: The Dimensions of the Literary Imagination*. New York: Sheed and Ward, 1960.
- Merrin, Jeredith. *An Enabling Humility: Marianne Moore, Elizabeth Bishop, and the Uses of Tradition*. New Brunswick: Rutgers UP, 1990.
- Millier, Brett. *Elizabeth Bishop: Life and the Memory of It*.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3.
- McCabe, Susan. *Elizabeth Bishop: Her Poetics of Loss*.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P, 1994.
- Page, Barbara. "Elizabeth Bishop: Stops, Starts and Dreamy Divagations." *Elizabeth Bishop: Poet of the Periphery*. Ed. Linda Anderson & Jo Shapcott. Newcastle: U of Newcastle, 2002.
- Tracy, David. "Metaphor and Religion: The Test Case of Christian Texts." *On Metaphor*. Ed Sheldon Sacks. Chicago: U of Chicago P, 1979. 89-104.
- Walker, Cheryl. *God and Elizabeth Bishop: Meditations on Religion and Poet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Abstract

“Fascinating Incongruities”: Elizabeth Bishop’s Spiritual Poetics (1)

Chung, Eun-Gwi

Elizabeth Bishop’s relationship to Christianity has been regarded as ambivalent, sometimes vexed. This essay explores the undercurrent of religious, spiritual musings in Bishop’s poems and proposes that her spiritual poems, in the form of “fascinating incongruities,” successfully pose religious and ethical questions in her/our time. Challenging the recent academic prac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shop and religion, I will go further into attempting a playful reading of “The Prodigal” and “One Art” as the intersection of secularity and spirituality.

How did Bishop confront the values embedded in the tradition of Christian allegory, how did she wrestle with the status of homelessness in her poems, how did she contemplate and describe the human condition of ‘being lost’? Following these questions, the intangible connection between alcohol and poetic imagination, between loss and writing can also be noted. Above all, I argue that Bishop’s spiritual wanderings presented in these two ‘overtly and covertly’ religious poems without the presence of God are, in fact, the sign of ethical responsibility to her life as a poet. And I call her spiritual response to the status of ‘being lost’ as ‘po-ethica.’

Key Words: Elizabeth Bishop, *The Prodigal*, *One Art*, Christianity, po-ethica.

엘리자베스 비숍, 『탕자』, 『하나의 예술』, 기독교, 시-윤리학

논문접수일: 2014.06.02

심사완료일: 2014.06.16

게재확정일: 2014.06.21

이름: 정 은 귀

소속: 한국외대 영어대학 영문학과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이메일: echung@hufs.ac.kr